

# 축산업의 요모조모

## 충주서도 1천만원 한우 출현

**【충북】** 산지가격이 불안한 가운데 충북 충주에서 한우 한마리에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 주인공은 강천용씨(충주시 달천동).

그는 자가생산한 송아지를 30개월간 길러 최근 출하했다. 이 한우거세우가 1++A등급을 받아 지육단가 1kg당 2만1천1백44원에 팔렸다. 강씨가 이 소 1두를 출하해 도축 수수료 및 자조금을 제외하고 수취한 금액만 1천17만8천1백76원으로 조수익만 6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강씨는 “거세우가 30개월령에 생체 중 807kg으로 잘 큰다는 생각은 했지만 등급까지 좋게 나와 큰 돈을 벌게 될 줄은 생각 못했다”며 기분을 잘 지켜 사육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나름대로의 비결을 설명했다.

■축산신문 - 2006-05-17

## “농장에 맞는 시스템 도입돼야”

### 양계장 HACCP도입 논의 본격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단계 HAC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계장 HACCP 도입이 양계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가금학회(회장 강창원)가 지난 12일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주제로 개최한 2006 춘계심포지엄에서 양계장 HACCP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천하제일사료 김종택 상무는 ‘양계농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적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양계장의 HACCP는 농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농장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상무는 양계장 HACCP는 경영주의 농장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집착과 양계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상무는 양계장의 HACCP 도입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양계장의 오염상황과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이상진 서기관은 “양계장 HACCP는 2008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토론자로 나선 경북대 김기석 교수는 “양계장의 HACCP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양계농장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규격화,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HACCP에 대한 양계농가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



하다”고 말했다.

또 남덕SPF 오경록 대표는 “일부 양계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장들이 농장 HACCP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농장 HACCP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과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JFeed 박성열 박사는 농장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사료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농장 김준영 대표는 각 단계별 HACCP 도입보다는 종합적인 HACCP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계장 HACCP 도입을 위해서는 가금학회는 물론 양계협회, 계육협회 및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축산신문 - 2006-05-17

### 전북 낙농가 “조합별총량제 결국 또 진흥회 농가만...” 우려

조합별 총량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 낙농정책에 진흥회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4일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집유체제 개편은 낙농진흥회 농가만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돼야한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자리에 모인 12개 지역 낙우회장단은 “특히 농림부가 제도개편에 있어서 1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조합별 총량제는 일견 조합에 차액지원을 해줌으로써 농가에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차액지원 기한으로 명시한 3년이 지나면 집유조합 간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가들은 “무엇보다 농가의 대유업체 거래 교섭력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조합단위 총량 쿼터가

줄어들 때 그 피해는 결국 농가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은 진흥회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진흥회 농가만을 시장경쟁 구도에 방치하는 유인책인 조합별 총량제를 거부하고 관내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전국단위 제도개편 하에 농가 개인 쿼터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와 관련업계에 촉구키로 했다.

■ 농수축산신문 - 2006-05-11

### 양돈자조금 납입률 95% 눈앞

양돈자조금이 시행 2년여 만에 농가 거출금 납입률이 95%에 육박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9일 현재 지난해 12월분 양돈자조금 고지금액 4억6959만원 가운데 4억4398만6000원이 납부됨에 따라 94.5%의 납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도축장에서 미납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경우 9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건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경영이 어려운 도축장들의 여건이 호전되면서 미납 거출금의 납부로 인해 얻어진 결과다”며 “이와 함께 지역 대의원, 관리위원, 양돈협회 지부들이 미납 도축장의 지속적인 독려 및 협조 등 맡은 바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향후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수납한 거출금을 부득이 미납할 경우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조금을 장기간 체납하거나 유용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 농수축산신문 - 2006-05-15

### 국산돼지고기 요리전단 배포

#### 양돈자조금관리위 16만부 제작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대한민국이 신나는 날, 우리돼지 먹는 날’이란 제목의 국산 돼지고기 홍보 전단 16만부를 제작해 지난 8일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은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요리법 5가지 △국산과 수입산 돼지고기 구별법 △돼지고기의 중금속 해독 효능 △맛있게 요리하는 비결 △재미로 보는 축구와 돼지고기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등심갈비조림, 등심꼬치, 고추장 불고기 퀘사디아, 파말이튀김, 캐슈넛 안심튀김 등의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특별한 느낌으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축산경제신문 - 2006-05-12

### 비거세 한우 값 폭락 대책마련 시급

#### 일시적 할인판매 등 단기처방 실효 없어

최근 비거세 한우를 중심으로 한 한우고기 소비위

축이 심화되면서 산지 한우가격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한우농기들이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가시화되자 각 지역 축협과 한우협회 등이 나서 다양한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등을 펼치고 있지만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떨어졌나= 산지 한우가격 하락은 지난 3월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해 9일 현재 한우수소가격은(농협자료) 600kg 기준 394만원 수준(kg당 65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60만원 하락했다.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거세 한우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해 농협 서울공판장의 경우 한우 거세우가 평균 1만6천원선에서 거래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우 비거세우의 평균 거래가격은 1만~1만1천원에 형성되는 등 육우가격(9천원대)과도 가격차를 벌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격하락, 원인은= 산지한우가격이 이처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소비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지시세는 kg당 6천~7천원 수준이지만 농협이 발표한 소비자 가격은 서울지역의 경우 등심이 kg당 55000~85000원, 양지 및 사태가 32000~72000원선으로 산지 시세와 연동되지 못해 소비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산지한우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한 것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가격폭락, 대책은 없나= 산지 한우가격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세 한우를 중심으로 한 '중·저가 한우 브랜드 개발' 등을 주문하고 있다. 고급육을 중심으로 한 한우 브랜드가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높은 가격으로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치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비거세 한우를 활용한 중·저가 한우 브랜드 개발이 소비촉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저가 한우 브랜드 시장성은= 중·저가 한우 브랜드에 대한 시장 잠재력은 충분히 내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들은 한우 브랜드에 대한 가격 다양화를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 축산경제신문 - 2006-05-12

